

## 재즈 피아노의 즉흥연주 기법 연구

사공미<sup>1</sup>, 조태산<sup>2\*</sup>

<sup>1</sup>DMS 뮤직 아카데미,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Study of Jazz Piano Techniques about Improvisation

Mi Sagong<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DMS Music Academy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1900년대 항구도시인 뉴올리언즈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뒤섞여 대혼란을 이루고 있는 시기였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노예들이 불렀던 노동요, 영가, 블루스와 영국 민요, 프랑스의 민속음악과 발레음악, 스페인의 춤곡, 군악대의 행진곡 등이 크레올의 래그타임(Rag Time)등과 뒤섞여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초기의 재즈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고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스윙 재즈, 즉 비밥은 빅 밴드의 편곡 위주로 연주되던 스윙 재즈와는 달리 소규모 악기편성을 선호하였고 ‘즉흥연주’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 재즈의 변형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비밥의 빠르고 복잡한 코드진행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쿨 재즈를 비롯해 20년 전의 비밥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재즈의 전통으로부터 근본적인 단절을 꾀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프리 재즈가 탄생하게 된다. 재즈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에 록(Rock) 비트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퓨전 재즈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시대별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온 재즈의 매력은 ‘즉흥연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별로 코드 진행과 스케일, 리듬 등에 약간의 스타일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연주자들도 재즈의 연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즉흥연주’이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음악활동을 했던 유명 연주자들도 그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 가면서 각기 다른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헤드는 비슷하게 연주 하지만 솔로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자기만의 즉흥연주 스타일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1900s in New Orleans, the harbor city, was indeed an era of confusion because there were various ethnic groups and races. Songs that had been sung by slaves taken from Africa, Black spiritual music, blues, British folk songs, French folk music, ballet music, Spanish dance music, and the march of military bands were mixed with Rag Time to achieve diversity. This developed the beginning of jazz. While swing jazz was most popular and loved by the public during the 20th century, the bebop preferred the small scale organization of musical instruments and developed as a form of jazz featuring the impromptu musical performances. Later, cool jazz, a new style involving the fast and complicated code progress, emerged with free jazz, which features the fundamental rupture from the tradition of the jazz. Miles Davis, who introduced the rock beat in jazz, started fusion jazz. Although jazz has been nam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ra, the main attraction of jazz lies on improvisation. In other words, despite a small changes in code progress and rhythm,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player considers is improvisation. Some famous players who lived in the same era followed the whole atmosphere but each had their own style. So, even when they did play the same song, they revealed their style in solo parts despite the same head.

**Keywords** : Jazz Piano, Bill Evans, Autumn Leaves, Solo, Jazz Piano Playing Technique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Tel: +82-10-2201-9686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9, 2016

Accepted February 3, 2017

Revised January 4,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900년대 이 후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재즈는 세계 제 1차 대전을 겪으면서 활동무대였던 유흥가의 폐쇄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면서 북부의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그 이후 백인들이 흑인들의 재즈를 모방한 디실랜드 재즈를 시작으로 뉴올리언스 재즈와 디실랜드 재즈가 결합되어 시카고 재즈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역사상 가장 대중적이고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스윙 재즈에 이르게 된다. 비밥은 빅 밴드의 편곡 위주로 연주되던 스윙 재즈와는 달리 소규모 악기편성을 선호하였고 ‘즉흥연주’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 재즈의 변형된 형태이다. 비밥의 빠르고 복잡한 코드진행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쿨 재즈를 비롯해 20년 전의 비밥 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재즈의 전통으로부터 근본적인 단절을 꾀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진 프리 재즈가 탄생하게 된다. 재즈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에 록(Rock) 비트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퓨전 재즈 등으로 발전되어 지금은 컨템포러리 재즈로 불리면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별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온 재즈의 매력은 ‘즉흥연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즈연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고, 대중들과도 친숙한 곡인 “Autumn Leaves”를 선정하여 화성과 스케일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재즈 피아노 연주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즉흥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Bill Evans”의 Solo를 분석함으로써 즉흥연주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2 Bill Evans

빌 에반스는 50-6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모던재즈의 한 종류인 쿨 재즈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다. 쿨 재즈는 빠른 템포와 기교 중심의 비밥 이후에 생겨난 장르로 좀더 부드럽고 느린 음악을 추구하였고,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빌 에반스, 쳇 베이커 등이 있다. 열광적인 비밥(bebop)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으로 솔로와 앙상블의 밸런스를 억제하는 듯한 정적인 연주스타일로 지적인 매력까지 풍겼다. 그리고 1950년대에 성행했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백인 뮤지션들의 재즈, 즉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중심 이념이 되었으나 그 후 흑인 뮤지션들에 의한 이스트코스트 재즈가 성행하게 되자 유행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빌 에반스는 쿨 재즈 뿐만 아니라 모달 재즈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전과는 다른 화성을 택했고, 이 점이 오히려 연주를 부드럽게 만들었으며 재즈계의 쇼팽이라고도 불릴 만큼 서정적인 연주를 하였다. Autumn Leaves는 1959년에 발매된 ‘빌 에반스 트리오’에 수록된 곡이다.

## 2. 본론

### 2.1 Autumn Leaves의 화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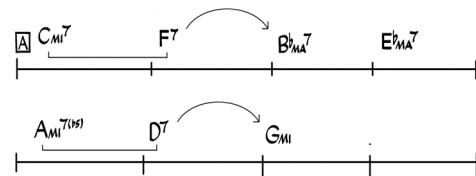


Fig. 1. Chord Progression of Autumn Leaves, A and A'

이 곡의 화성진행은 기본적으로 A의 선율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근음(Root)의 완전4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의 8마디는  $\Pi m7-V7-I$  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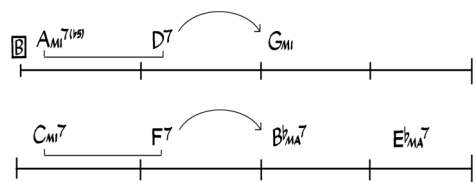


Fig. 2. Chord Progression of Autumn Leaves, B

B 부분도  $\Pi m7-V7-I$  진행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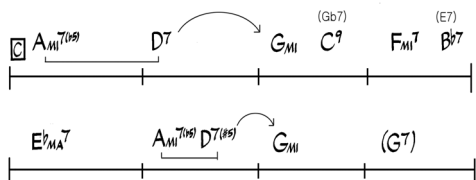


Fig. 3. Chord Progression of Autumn Leaves, C

C 부분은 기본적으로  $\text{II m7-V7-I}$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서 단순히 질 수 있는 기본적인  $\text{II m7-V7-I}$  진행 대신에 반음 하행으로  $\text{II m7-V7}$ 를 적용하여 C7의 대리코드인 Gb7, Bb7의 대리코드로 E7을 사용하기도 한다.

### 2.2 Autumn Leaves의 스케일 분석



Fig. 4. The First Solo of Autumn Leaves, A

Gm코드에서 코드 톤 Arpeggio를 하였고, 그 다음 마디인 G7에서는 Mixo-b9,b13 Scale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Improvisation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Solo의 첫 번째 마디 Cm에서는 Dor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만들었고 그 다음 마디의 F Mixo-Lydian Scale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마디에 Bb Major Scale을 사용하였고 EbM7에서는 코드 톤을 Arpeggio하여 Lick을 마무리 하고 있다. Am7b5에서는 A Locrian Scale을 상행하여 다음 마디의 첫 음으로 연결하고 있고 D7#9에서는 #9음인 ‘파’, b13인 ‘b시’를 사용하였으므로 ‘Altered Scale’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Gm6에서는 #파’를 사용하여 Harmonic Minor Scale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마디의 G7에서는 b13인 ‘b미’를 사용하였고 #9음인 ‘b시’를 사용하여 Altered Scale로 볼 수도 있고 ‘Combination of Diminished Scale’로 볼 수도 있다.



Fig. 5. The First Solo of Autumn Leaves, A'

<A'>의 두 번째 마디인 F7에서 처음 두 박자는 ‘솔’을 시작으로 Chromatic Ascent하여 Chromatic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나머지 두 박자는 F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였다. BbM7에서는 첫 음인 ‘파’를 Anticipation하여 앞의 마디에 F7의 코드 톤과 Common Note(공통화음)가 되게 사용하였다. EbM7에서는 첫 음인 #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톤인 ‘레’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고, 세 번째 음인 ‘파’를 시작으로 Chromatic Descent하여 코드 톤 Arpeggio로 연결 하였다. Am7b5에서는 A Locrian Scale을 사용하여 어둡고 쓸쓸한 느낌을 표현하였고, 마디의 마지막 박자에 Secondary Dominant A7의 대리코드로 Eb7을 사용하여 Chord Comping하여 조금 더 Jazzy한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 다음 마디의 D7에서는 b9음인 ‘b미’와 b13인 ‘b시’를 사용하였으므로 Mixo-b9,b13 Scale을 사용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코드인 Gm6에서는 Harmonic Minor Scale을 사용하여 마무리 하고 있다.



Fig. 6. The First Solo of Autumn Leaves, B

[Fig. 5]의 B 부분의 첫 마디는 A Dorian Scale을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다. [Fig. 6]의 첫 번째 마디인 D7에서는 코드 톤인 ‘도’음을 앞뒤로 두고 가운데에 ‘레’를 Neighboring Note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 마디 Gm6에서는 G Harmonic Minor Scale로 Lick을 마무리하고 있다. Cm7에서는 ‘레’음을 사용하였으므로 C Phrygian Scale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마디의 F7에서는 b13인 ‘레’음의 사용으로 Mixo-b9, b13 Scale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BbM7에서는 9<sup>th</sup> 음을 Anticipation하여 Tension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였고 마지막 박자에서 ‘레’를 Tension 9<sup>th</sup> 인 ‘도’로 Chromatic Approach하고 그 다음 마디의 EbM7의 코드 톤으로 연결하여 Lick을 마무리 하였다.

[Fig. 7]의 첫 번째 마디인 Am7(b5)에서는 A Locrian Scale을 사용하고 있으며 ‘레’를 ‘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로 사용하였다.



Fig. 7. The First Solo of Autumn Leaves, C

다음 마디인 D7에서는 b9th인 ‘비’와 b13인 ‘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마디를 D Mixo-b9, b13 Scale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박자에 나오는 ‘파’는 앞뒤 음의 Neighboring Note로 사용하였고 세 번째 박자에 있는 ‘레’는 코드 톤인 ‘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 그 다음 마디인 Gm6에서는 ‘미’와 ‘파’를 사용하여 두 마디 동안 Melodic Minor Scale로 Jazz Minor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Eb7에서는 ‘파’를 코드 톤인 ‘솔’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로 사용하였고 세 번째 박자는 네 번째 박자의 ‘비’로 향하는 Double

Chromatic Approach이다. 다음 마디의 D7에서는 b9th인 ‘비’와 b13th인 ‘시’를 사용하여 Mixo-b9, b13 Scale로 볼 수 있고 ‘레’를 ‘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로 사용하였다. Gm에서는 첫 박자에서 두 번째 박자의 첫 음인 ‘도’로 향하는 Indirect Resolution을 사용하였고 다음 음인 Tension 9<sup>th</sup> 와 코드 톤으로 해결하였다. 마지막 마디인 G7에서는 b13th, Root, b9th 음을 사용하여 G Mixo-b9, b13 Scale로 두 번째 코러스의 시작을 알리며 Lick을 만들어 가고 있다.



Fig. 8. The Second Solo of Autumn Leaves, A

[Fig. 7]의 마지막 마디인 Cm7부터 A 부분이 시작된다. 첫 마디인 Cm7에서는 C Aeolian Scale로 Lick을 시작하고 있고, ‘미’는 ‘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 두 번째 마디인 F7에서는 F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만들고 있다. 세 번째 마디에서는 Bb Ionian Scale을 사용하여 그 앞의 마디에서 이어지는 선율을 만들고 있다. 네 번째 마디인 Ebmaj7에서는 세 번째 박자에서 ‘라’음을 사용하였으므로 Eb Lyd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마디인 Am7b5에서는 A Locr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이어가고 있다. 여섯 번째 마디인 D7에서는 ‘시’와 ‘비’를 사용하여 하행하고 있으므로 D Mixo- b9th, b13th라고 볼 수 있고, 일곱 번째 마디인 Gm6에서는 처음 두 박자는 G Aeolian Scale로 시작하였고, 세 번째 박자는 ‘레’를 사용하였으므로 G Lyd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박자의 ‘시’는 그 다음 마디의 첫 번째 음인 ‘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 여덟 번째 마디인 G7에서는 도미넌트 코드인데도 도미넌트와 관련된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의 마디와 같이 G Aeolian Scale을 사용하여 좀 더 재즈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Fig. 9. The Second Solo of Autumn Leaves, A

[Fig. 9]의 첫 번째 마디인 Cm7에서는 ‘라’음으로 Chromatic Scale을 사용하여 하행하면서 Lick을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 마디인 F7에서는 F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이어가고 있고, 세 번째 마디인 Bbmaj7에서는 처음의 두 박자에서 ‘시’를 사용하였으므로 Mixo-b9th, b13th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박자는 Bb Ionian Scale이다. 네 번째 마디인 Ebmaj7에서는 Eb Ionian Scale로 상행하면서 Lick을 만들고 있다. 다섯 번째 마디인 Am7b5에서는 A Locrian Scale을 사용하여 상행하면서 그 앞의 마디와 리듬을 Sequence하고 있다. 여섯 번째 마디인 Ab7에서는 Combination Of Diminished Scale을 순서대로 상행하였고, 일곱 번째 마디인 Gm6에서는 처음 두 박자는 ‘파’를 사용하였으므로 G Harmonic Minor Scale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는 G Aeolian Scale을 사용하면서 ‘#도’를 ‘레’로 Chromatic Approach 하였다. 여덟 번째 마디는 처음 두 박자는 G Aeolian Scale을 사용하여 그 앞의 마디와 연결하고 있고, 세 번째 박자에서는 ‘파’를 시작으로 ‘b미’까지 Double Chromatic Approach하였다. 마지막 음인 ‘b레’는 그 다음 마디의 첫 음인 ‘도’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

[Fig. 9]의 마지막 마디가 B 부분의 첫 마디이다. Am7b5에서는 처음 두 박자는 A Locrian Scale로 하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 박자의 두 음은 A

Dorian Scale이고, 마지막 음인 ‘b미’는 Locrian Scale이다. 두 번째 마디인 D7에서는 D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Lick을 만들었고,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까지 리듬을 Sequence하고 있다. 세 번째 마디인 Gm6에서는 ‘미’를 사용하였으므로 G Dorian Scale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마디는 G Aeol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이어가고 있다.



Fig. 10. The Second Solo of Autumn Leaves, B

다섯 번째 마디인 Cm7에서는 C Aeolian Scale이라고 볼 수도 있고, C Dorian Scale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마디인 F7에서는 b9th인 ‘b솔’과 #9th인 ‘b라’를 사용하였으므로 F Altered Scale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는 코드 톤이다. 일곱 번째 마디인 Bbmaj7에서는 Bb Ionian Scale을 사용하면서 ‘시’음을 ‘b시’로 Chromatic Approach하였다. 여덟 번째 마디인 Ebmaj7에서는 #11th인 ‘라’음을 시작으로 하행하였으므로 Eb Lydian Sca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첫 번째 마디인 Am7b5에서는 첫 박자는 ‘#파’를 사용하였으므로 A Dorian Scale이고, 두 번째 박자는 ‘b미’를 사용하였으므로 A Locrian Scale이며, 세 번째 박자는 다시 ‘#파’를 사용하여 A Dorian Scale이고, 네 번째 박자는 다시 ‘b미’를 사용하여 A Locrian Scale이다. 두 번째 마디인 D7에서는 D Mixo-Lydian Scale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는 ‘#파’로 향하는 Chromatic Approach이다.



Fig. 11. The Second Solo of Autumn Leaves, C

세 번째 마디인 Gm6에서는 첫 음으로 ‘미’를 사용하였으므로 G Dorian Sca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앞의 마디와 같은 패턴으로 리듬을 만들어 Sequence하였다. 네 번째 마디에서는 G Aeol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 마디인 다섯 번째 마디의 Eb7에서는 #9th인 ‘#파’를 사용하였으므로 Eb Altered Scale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마디인 D7에서는 #11th인 ‘b라’와 #9th인 ‘#파’음을 사용하여 Lick을 만들었으므로 D Altered Scale라고 볼 수 있고, 그 앞의 마디와 리듬을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Sequence하였다. 일곱 번째 마디인 Gm6에서는 G Aeolian Scale을 사용하여 Lick을 마무리 하고 있다.

### 3. 결론

재즈연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인 빌에반스의 “Autumn Leaves”를 통해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즉흥연주를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재즈피아노계의 쇼팽이라고 불리며 클래식한 재즈 연주로 유명한 빌 에반스의 “Autumn Leaves”에서는 그만의 스케일, 코드 톤 Arpeggio를 이용해 Mixo - b9,b13 Scale, Dorian Scale, Locrian Scale, Altered Scale등의 스케일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Improvisation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스케일을 통하여 표출되는 감정의 표현 등도 분석해 보았다.

빌 에반스(Bill Evans)의 실험적인 연주방식과 스케일 연구의 표현이 그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런 유명한 연주자들의 화성과 스케일 분석을 통해 현대의 재즈 즉흥연주 기법을 공부하는 재즈 연주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어 발전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Barrie Nittles, “Harmony”, Berklee College Of Music, 1992.
- [2] Brent edstrom, “Jazz Piano Solos Duke Ellington”, Hal-Leonard, 2009.
- [3] Oscar Peterson, “Oscar Peterson Plays Broadway”, Hal-Leonard, 2006.
- [4] Mark Levine, “The Jazz Piano Book”, Sher Music, 1989.
- [5] Rob Mullins, “Jazz Piano Voicings”, Hal-Leonard, 2004.
- [6] Daniel A. Ricigliano, “Jazz Harmony”, Se Kwang Music, 1989
- [7] Publishing Corporation, “Jazz Piano Technique”, Hal Leonard, 2013.
- [8] Philipp Moehrke, “Jazz Piano - Improvisation Concepts”, A.M.A Verlag, 2009.
- [9] Mi Sagong, “A Study of Jazz Piano Techniques about Improvisation- Autumn Leaves”, KAIS the Autumn Conference, 2015.
- [10] Mi Sagong, “A Study of Jazz Piano Techniques about Improvisation - Autumn Leaves - Eddi Higgins”, KAIS the Spring Conference, 2016.

### 사 공 미(Mi Sagong)

[정회원]



- 2017년 2월 : 청운대학교 산업기술 경영대학원 실용음악과 (음악석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음악과 외래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캠퍼서바토리 외래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재즈 피아노

조 태 선(Tae-Seon, Cho)

[중신회원]



- 2016년 2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분과위원장
- 2016년 5월 ~ 현재 : 한국문화예술컨텐츠융합협회 회장
- 2010년 3월 ~ 현재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K-POP, 엔터테인먼트